

구윤철 부총리, 확대간부회의에서 ‘성과 중심의 성장’과 ‘각별한 민생 챙기기’ 강조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19일 (월)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각 실·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「확대간부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구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‘성과 중심의 경제운영’을 특별히 강조하였다. 발표된 대책을 토대로 2026년에는 초혁신경제 구현, AI 대전환, K-GX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, 이를 위해 모든 분야를 획일적으로 다 추진하려 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, 설정된 목표에 정책 역량을 모아줄 것을 지시하였다.

아울러, 성장과 함께 그 성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각별히 챙길 것을 당부하였다. 특히,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**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함**을 강조하면서 **각 부처와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해줄** 것을 주문하였다. 또한, 경제성장전략 보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강조하신 것처럼 **청년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**하며, 이러한 민생 관련 고민들이 **앞으로 설 민생대책 등을 포함하여 준비 중인 여러 대책들에 충분히 반영**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.

그리고,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먼저 **선제적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**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 각 부처와 함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, 향후 발생할 정책 이슈를 미리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.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**내부적으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,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**될 수 있도록 자유토론 방식의 실국 단위별 논의를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하였다.

지금까지 관행에서 벗어나 **새로운 방식·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고민**하고, **부내 소통과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**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**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강조**하였다.

끝으로, 이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쓸데없는 일을 줄이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지적하면서 부총리 스스로 **술선수범**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 부총리로서 **과도한 의전, 형식적 보고서 작성, 보여주기식 업무는 지양**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간부도 성과 창출에 몰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박경찬 (044-215-2510)
		담당자	서기관	고대현 (kothere85@korea.kr)